

박물관에서 다시 만나다

최근 박물관은 지역의 문화 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특별전시로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박물관 등 지역 국립 박물관의 올해 주요 전시를 소개한다.

◇국립광주박물관 = 지난해 54만5480명이 다녀간 국립광주박물관은 올해 3차례 특별전과 2차례 신창동 관련 특집전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가장 먼저 선보이는 전시는 '임병선 기증유물전'(4월15일~6월15일)이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임병선 선생이 기증한 문종 유물 145점 중 '임장원 초상', '규암집(葵庵集)' 등 임장원 관련 유물을 중심으로 교지(敎旨), 간찰(簡札), 각종 서책 등 유물 80여 점을 선보인다.

'남도문화전'(7월1일~9월28일)은 다섯 번째 순서로 고흥을 찾아간다.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통시대적으로 정리·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시는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1668~1715)-서거 300년'(10월21일~2015년 1월18일)전이다. 전시 유물은 윤두서 자화상, 해남 윤씨가전고화첩, 가물첩(家物帖), 연운화첩(蓮翁畫帖) 등 120여 점이다. 공재 윤두서는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과 함께 조선 후기 삼재(三齋)로 불린다. 이번 전시는 윤두서부터 삼대에 걸쳐 화업을 계승한 윤두서 일가의 서화세계를 조망한다. 아들 윤덕희는 아버지와 함께 말 그림의 대가로 이름을 날렸으며, 손자 윤용은 정밀한 묘사와 풍속화에 뛰어났다.

특히 국보 240호 '자화상'은 윤두서의 대표작이자 조선시대 회화사의 결정으로 내면의

국립광주박물관

윤두서전·임병선 기증유물전 등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베트남 수증발굴 문화재 특별전

군산서 목포의 추억 1번지, 오거리전

국립나주박물관

고인돌전·중앙박물관 순회 베트남전

정신세계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의 회화 세계를 보여준다. 보물 481호 '해남윤씨가전고화첩'에서는 선비화가였던 윤두서의 다양한 회화세계와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광주 신창동 유적(사적 375호) 관련 특집전은 국립광주박물관만이 할 수 있는 전시로 '통형칠기 속에 담긴 선사시대 목공기술과 옷칠'(3월4일~4월6일)전과 '비단(silk)의 고장, 광주 신창동'(11월4일~12월7일)전으로 두 차례 진행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국제 교류전으로 '베트남 수증발굴 문화재 특별전'(가칭·10월 말~2015년1월 말)을 준비했다.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과 MOU를 체결하고 수증발굴 관련 기술을 베트남에 전파하고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베트남 해역에서 발굴된 수증 유물 20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주요 유물은 15세기 베트남 도자기와 17~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

18세기 중국 도자기 등이다. 베트남 인근 해역에서는 침몰 상선에서 상당수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베트남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 자본으로 수증 매장 문화재를 발굴했는데, 최근에는 한국으로부터 수증 발굴 기술 등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항구도시 목포의 추억 1번지, 오거리' 특별전은 3월11일~5월11일 군산 근대역사관으로 옮겨져 연장 전시된다. 개항 이후 목포 오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과 거리복원 지도 등을 비롯해 국



신창동 유물전에 전시될 직물생산도구

장, 제과점, 서점, 약기점 등과 같은 문화시설을 당시 모습으로 재현한 축소 모형과 그래픽 등으로 선보이는 전시다.

◇국립나주박물관 = 지난해 11월 개관한 국립나주박물관도 최근까지 개관기념 특별전으로 '천년 목사골 나주'로 시민들을 처음 찾아갔다. 이 전시는 고려시대 이후 천년 세월 동안 전남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나주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은 전시다. 전시를 통해 전통 시대에 전주와 함께 호남을 대표했던 또 하나의 고을 나주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지역의 선사문화 유산을 대표하는 고인돌 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고인돌' 관련 전시와 역사 속의 편지를 통해 시대상을 알아보는 전시, 베트남 유물 관련 특별전 등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베트남전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순회 전시로 베트남의 고대문화를 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4~6월 국립중앙박물관과 7~9월 국립제주박물관을 거쳐 나주를 찾을 예정이다. 또한 국립역사박물관 명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문화포럼 결과자료집' 발간

최정화·표미선 씨 등 문화강의록 답아

광주일보·비엔날레재단 공동

광주일보사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광주의 문화인력을 육성하고, 도시의 브랜드 파워와 문화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진행한 '2013 광주문화포럼 결과자료집'(사진)이 나왔다.

광주문화포럼은 지난해 7~12월 매달 한차례 '시각문화예술 전반과 인문·사회 관련 주요 이슈와 비전'이라는 큰 주제 아래 진행됐다. 매달 시민, 작가, 대학생, 교수, 문화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강의에는 최정화 복합매체작가가 강사로 나서 최근 큰 흐름을 타고 있는 한국 팝아트 활동사례를 소개했다. ▲2강 '시각문화현장을 기획하는 큐레이터의 역할과 활동'(마리아 린드 스톡홀름아트센터 관장) ▲3강



'자본시장 상품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한 예술의 현실에 관한 진단'(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4강 '광주가

정책적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미디어아트에 관한 사회철학적 관점'(박영욱 숙명여대 교수) ▲5강 '국내·외 미술시장의 흐름과 미술계 상황'(표미선 한국화랑협회 회장) ▲6강 '예술의 분화와 그 속에 투영된 동서고금 미술에서 법의 모습'(안경환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결과자료집에는 강사들의 약력과 함께 강의 전반에 걸친 내용 등이 자료 사진과 함께 실렸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우리 문화유산 '제대로' 배운다

광주민속박물관대학, '한국의 유산시리즈' 무료 진행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김해룡) '민속박물관대학'은 5년 계획으로 '한국의 유산' 시리즈를 진행한다.

첫해인 올해는 '한국의 유산 시리즈 1-문화유산의 이해'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유산으로 본 한국문화', '문화유산으로 본 지역문화', '한국의 자연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강좌가 이어진다.

올해 강의는 장호수 총북문화재연구원장의 '문화유산의 이해' 강좌를 시작으로 박종

환 국립나주박물관장, 이태호 명지대 교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의 주제는 '문화재 파괴와 약탈의 역사-반달리증과 열기니증', '첨단과학과 문화재 보존·복원', '우리 회화 감상법' 등이다.

강의는 오는 3월7일부터 5월2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광주시립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며 나주와 전주로 답사로 떠난다. 수강료 무료(답사 실비 부담). 18일부터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문의 062-613-5363. /김경인기자 kki@

제19기 광주민속박물관대학 일정표

날짜	강좌명	강사
3월 7일	입학식 문화유산의 이해	광주민속박물관 장호수(총북문화재연구원장)
3월14일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책	김창규(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3월21일	유형문화재의 이해	박종환(국립나주박물관장)
3월28일	이 시대에 무형문화재란 무엇인가	김인규(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
4월 4일	호남의 천년 고도, 나주(답사)	김준혁(나주문화원 사무국장)
4월11일	문화재 파괴와 약탈의 역사-반달리증과 열기니증	이보아(서강대학교 교수)
4월18일	우리 문화재 수난사	김인덕(청암대 재일코리아연구소 실장)
4월25일	문화재를 지킨 사람들	윤홍로(문화재청 문화재위원)
5월 2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답사)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장)
5월 9일	첨단과학과 문화재 보존·복원	양필승(서울역사박물관 보존과학과장)
5월16일	우리 회화 감상법-조선 후기 풍속화와 춘화	이태호(명지대학교 교수)
5월23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수료식	광주민속박물관

서민의 삶, 일상속으로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노창수 시조집 '조반권법' 발간

전 광주일보문화회장을 역임했던 노창수 시인의 시조집 '조반권법'(고요침刊·시진)이 나왔다.

2003년 '슬픈 시를 읽는 밤' 이후 일곱 번째 작품집인 이번 시조집에는 일상의 소재를 정감어린 시어로 그려낸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표제작 '조반권법'(朝飯拳法)은 막노동용 하는 다섯 사람이 각기 초라하고 가난한 조반상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마치 권법을 휘두르듯 자랑삼아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쓴 시다. 서민의 삶을 간결한 서정과 날카로운 풍자로 풀어낸 시인의 공력이 만만치 않다.

이번 작품집에는 오월 광주의 아픔을 형상화한 시조도 많다. '무등산 숲길을 아직 압력밥솥이 끓고 있다' 등의 시조에는 민초들의 꺾이지 않는 자유 의지가 짙히 묘사돼 있다. 그는 "일상의 오묘처럼 시조는 지



존'이라며 "보법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로 오르면 언덕은 정도로 가라 후려치기도 한다"고 시 쓰기에 대한 고통과 열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해설을 쓴 이지엽(경기대 교수) 시인은 "노 시인의 시는 대개 시대에 민감하고 비판적인 작품들이 갖기 쉬운 경직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서정의 포괄적 상상력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그의 시편들은 남도의 큰 나무가 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한평 출신인 노 시인은 197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한글문화상(1994), 한국시비평문학상(1998), 광주문학상(2003), 현대시문학상(2004)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kszpark@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이태리 가구 전문점

SINCE 1989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1899-0240
홍스페이스 가구빌딩